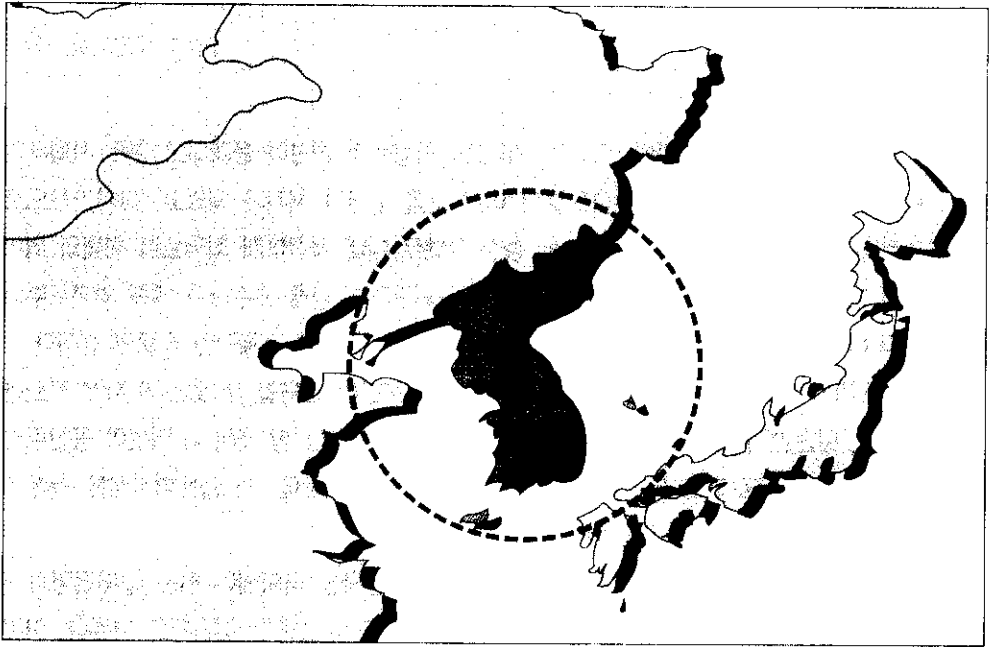


논 단



50. 북한의 붉은기사상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곽승지 / 내외통신 국제부 차장

66. 김영삼 정부의 통일 기조와 대북·통일 정책의 실제

이상민 / 부산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장

81. 한국 통일·외교정책결정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김 욱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붉은기사상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곽승지 / 내외통신 국제부 차장

붉은기사상은, 지난 50여 년간 안주해오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고 현존 사회주의 국가 들마저도 변화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김일 성의 갑작스런 사망과 2년 연속된 홍수 피해로 대내 사정마저 최악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 게 된 북한이 세계사적 흐름을 외면한 채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변화 의 바람을 차단하고 내부 단결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보다 구체적인 발로인 셈이다. 따라서 붉은기사상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 에서, 단순한 구호의 차원을 넘는 이데올로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산주의 사회 에서의 이데올로기는 도그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기사상은 북한 주민들 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붉은기사상은 적어도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북한에게는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보다도 더 소중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현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이고 명료한 실천적 이데올로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이 최근 주체사상보다 붉은기사상을 더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따 라서 북한은 앞으로 붉은기사상에 대한 체계화 작업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를 더욱 강조해나 갈 것이다.

문제 제기

이후

장엽의 망명은 북한 사회의 체제적 불 안정성과 지난 40여 년 동안 북한을 지배해온 이념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이라 는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

켰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황장엽의 망 명 직후 일부 언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황 장엽의 역할과 북한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지도 이념이 주체사상에서 붉은기사상으로 대체 됐다”고 보도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붉은기사상²⁾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리라고 평가하는 데는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 황장엽의 망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 단초는 이미 그 이전에 제공되었다. 북한이 붉은기사상과 관련된 보도를 늘리는 가운데 금년 1월 1일에는 신년사를 대신해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에 공동으로 게재한 사설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붉은기사상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³⁾

이 사설은 특히 과거 주체사상을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구호⁴⁾에서, 주체사상을 붉은기사상으로 치환해 “온 사회를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붉은기사상은 이미 황장엽의 망명에 앞서 북한 사회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소재의 하나로 위치지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붉은기사상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

재까지 붉은기사상에 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붉은기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입장이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붉은기사상을 단순한 구호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이해할 경우 지난 40여 년 동안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매김해온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필자는 내재적 관점에서 볼 때 붉은기사상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이 붉은기사상을 제기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과정이 마치 주체사상을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 구축해온 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⁵⁾ 사회주의 국가가 본질적으로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체제를 강화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

1) 「중앙일보」(1997. 2.14) 및 「세계일보」(1997. 2.15) 등 참조.

2) 북한은 붉은기사상과 관련해 이를 제기한 초기에는 ‘붉은기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주로 ‘붉은기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용어 상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에서 사용되는 ‘붉은기철학’ 또는 ‘붉은기사상’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를 ‘붉은기사상’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3) 이 사설에서는 주체사상을 2 회 사용한 반면, 붉은기사상은 7 회 사용했다.

4) 북한은 1974년 김정일의 논문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자’는 구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이 구호에서 김일성주의를 주체사상으로 치환해 부르고 있다.

5)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주체’라는 용어가 제시된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으며,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된 1982년에 이르러 비로소 이론적으로 체계화됐다.

을 대체하는 지도 이념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북한 사회에서 주체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주체사상의 지위를 다른 이데올로기가 대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역학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주체사상은 오늘날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명실상부한 순수 이데올로기이며 목표 문화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김정일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용도폐기한다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은 붉은기사상이 아직은 완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적인 면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붉은기사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기간이 일천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며 따라서 붉은기사상이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라는 명분 하에 40여 년 동안 精製된 주체사상을 대체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붉은기사상과 주체사상은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 필자는 Franz Schurman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계적 구조론⁶⁾을 원

용,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도적 이념으로서 순수 이데올로기(pure ideology)로 기능하고, 붉은기사상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로 기능한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즉, 주체사상과 붉은기사상이 각각 동등한 지위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상하의 위계적 질서 하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붉은기사상이 오늘의 북한 상황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기된 실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를 ‘관념과 행동의 연결체계’(a body of ideas-actions)로 인식하고, 그 연결 관계가 간접적인가 혹은 직접적인가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위계를 설정한 Schurman의 방법⁷⁾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혁명과 건설을 도모해온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본고는 붉은기사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논의를 위한 문제 제기 및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붉은기사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붉은기사상이 제기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아울러 붉은기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내재적 관점에서 문헌 분석(textual analysis)

6) Schurman, Franz(1973),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The Univ. of California Press, pp. 17~104.

7) *Ibid.*

의 방법으로 일별해보고자 한다.

붉은기사상의 제기 배경 및 전개 과정

제기 배경

붉은기사상에 대해 북한은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대체로 오늘날 그들이 처한 상황을 30년대말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혁명 투쟁을 하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 비견할 만큼 어려운 것으로 전제⁸⁾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사상 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붉은기사상은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혁명 선배들이 지녔던 혁명적 신념으로 무장해수령(김정일)을 결사 옹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나가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붉은기사상을 제기한 배경은 바로 오늘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80년대말 이후 사회주의 권의 붕괴에 이어 1994년 김일성의 사망 및 1995~96년의 잇달은 흉수 피해 등 내우 외

환의 절박한 상황에서 체제 수호를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절실히 요구됐으며, 그러한 필요성이 오늘의 상황과 유사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 고취했던 붉은기의 상징성을 차용해 붉은기사상으로 구체화되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위기 의식은 90년대 이후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에서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북한은 붉은기사상을 통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忍苦를 강요하는 동시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함으로써 당면한 체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일성의 사망에 따라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이 임박하게 되자 김정일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된 것도 붉은기사상이 제기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이른바 유훈 통치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완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점에서 유훈 통치 기간은 사실상 죽은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 통치자이고 김정일은 그의 대리인으로 역할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수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북한체제의

8) 「로동신문」(1996. 10.18), “모두 다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특수성을 감안하여 붉은기사상이라는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김정일에 의해 붉은기사상이 제기⁹⁾됐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일성에게서 김정일에게로 우상화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온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오늘의 북한 사회를 추스르는 데 있어서, 주체사상만을 강요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도 붉은기사상을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즉, 주민들에게 오늘의 위기 상황을 이해시키고忍苦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북한을 지배해온 주체사상이 유용하지 못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대체해 혁명과 건설을 도모할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로 붉은기사상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가아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과 탈북 사태가 점점증하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됐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 사설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을 제한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개 과정

○ 붉은기에 대한 상징화

북한은 붉은기를 붉은기사상으로 이데올로기화하기에 앞서 이미 중요한 이념적 표상으로 삼아왔다. 이는 붉은기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통을 본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붉은기가 혁명을 상징하는 데 이용된 것은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정권으로 불렸던 파리콤뮌(Paris Commune)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혁명가들이 붉은기를 혁명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 가요로 불리는 '赤旗歌'도 파리콤뮌에서 불렸던 노래 '인터내셔널'을 본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

북한은 "우리 인민은 해방 후 부여받은 토지의 머리에도 붉은기를 휘날리고 첫출강의 기쁨 넘친 용해장에도 붉은기를 걸었었다. 새 조국 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진두에는 언제나 혁명의 붉은기가 나리었다"¹¹⁾고 주장, 해방 직후부터 붉은기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강조한다.

9) 「로동신문」(1996. 1.9)

10) '적기가' 역시 파리콤뮌 당시 불렸던 노래 '인터내셔널'을 본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창순(1997. 3), "이념 파산과 체제 붕괴", 「북한」, 북한연구소, pp. 24~27.

11) 「로동신문」(1995. 9.30), "혁명의 붉은기를 추켜들고 주체 위업을 완성해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에 대하여"

그러나 북한이 붉은색 또는 붉은기의 상징적 의미를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50년대 말 이후부터인 것 같다. 이때부터 일부 조직의 이름에서 붉은색의 의미를 부각시키는가 하면 각종 대중 운동과 문예물에 붉은기를 강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직의 이름에 붉은색의 의미가 가미된 것은 1959년 1월 창설된 노동적위대가 있다. 이후 70년대 들어 붉은청년근위대 등이 생겨났다. 대중 운동에서는 1960년 8월 김일성이 인민군을 현지 지도하면서 제기한 것을 계기로 붉은기 중대운동이 처음으로 등장했다.¹²⁾ 이 운동은 인민군대로 하여금 50년대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추진된 천리마운동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나중에 붉은기 대대 붉은기연대 운동으로 확산됐다. 붉은기와 관련된 문예물로는 1962년에 '붉은깃발'이라는 무용극이 등장한다.¹³⁾ 4막 7장으로 구성된 이 무용극은 항일 혁명 시기 빨치산들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묘사한 것으로 그해 '인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70년대 이후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 경쟁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붉은기에서 붉은기사상으로

붉은기사상의 연원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赤旗歌'라는 혁명 가요를 유난히 좋아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¹⁴⁾ 북한에서 대표적인 '혁명 가요'의 하나로 불리는 이 노래의 후렴에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 그 밑에 굳게 맹세해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라는 구절¹⁵⁾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체제 수호 의지를 대변하고 있으며 북한이 주민들에게 이러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붉은기를 이데올로기화했다는 주장이다. 북한 역시 붉은기사상을 주장하면서 '赤旗歌'에 있는 이 가사를 자주 인용함으로써 이같은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을 상징하는 보편적 의미의 붉은기에 특별한 의미 예컨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 사상과 같은 철학적 의미가 부여된 시점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한 1994년 11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⁶⁾ 김정일이 자신이 발표한 이 논문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나의 사상은 붉다"고 말했음을 북한 언론 매체들이 강조¹⁷⁾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

12) 로동당출판사 편(1982), 「백과전서」, 제3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p. 297.

13) 위의 책.

14) 「세계일보」(1997. 2.15).

1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편(1994), 「조선 가요 2000곡집」(평양).

16) 이 논문은 「로동신문」(1994. 11.4)에 게재되었지만, 발표 일자 11월 1일로 되어 있다.

의 언급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북한 스스로는 이 논문이 발표된 시점을 붉은기가 혁명을 상징하는 보편적 의미에서 특별한 철학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굴절되게 된 계기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김정일의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붉은기에 대한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그같은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무렵 북한이 붉은기의 상징성을 강조한 「로동신문」의 글로는 1995년 8월 28일 청년절 4주년에 즈음한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제하의 정론, 9월 30일 1면 상단에 실린 혁명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의 악보와 가사 및 3면에 게재된 이 노래를 해설하는 기사, 10월 4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억세계 전진해 나가자” 제하의 사설, 1996년 1월 1일 신년사를 대신해 「조선인민군」, 「청년전위」紙에 함께 게재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제하의 사설, 1월 8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제하의 사설, 그리고 1월 9일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제하의 논설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로동신문」 사설·논설

등의 제목에서 붉은기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붉은기에 대한 관심의 일면을 나타낸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은 1996년 1월 8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붉은기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한편, 북한은 붉은기사상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 ‘붉은기정신’ 등을 혼용하고 있다. 즉, 1996년 1월 8일자 「로동신문」이 ‘붉은기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때는 ‘붉은기정신’을 함께 사용했다. 이어 다음 날인 1월 9일자 「로동신문」은 붉은기사상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붉은기철학’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1996년 10월 18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붉은기사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붉은기사상’이라는 용어는 1997년 1월 1일 「로동신문」 등의 공동 사설에서도 유일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7년 2월 15일 조선중앙방송은 정론에서 다시 ‘붉은기사상’과 함께 ‘붉은기정신’ 등의 용어를 혼용했다. 결국, 북한은 초기에 ‘붉은기철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고 차츰 ‘붉은기사상’이라는 용어로 단일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비하지

17) 김정일이 이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은 1995년 8월 28일 청년절 4주년을 기념해 게재한 「로동신문」 논설 ‘붉은기를 높이 들자’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이후 1995년 9월 30일자 「로동신문」 및 1997년 2월 15일자 조선중앙방송 등에서 발견된다.

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⁸⁾ 북한이 '붉은기 철학'에서 '붉은기사상'으로 용어의 명칭을 바꾼 것은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을 고려해 이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붉은기의 상징성과 관련해서도 '붉은기'가 '붉은기철학'으로 제기되기까지의 기간중 일련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붉은기사상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내부적인 진통을 겪었음을 엿보게 한다. 「로동신문」은 붉은기를 1995년 9월 30일자 해설 기사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빛내여오신 영원한 혁명의 깃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 주체사상이 그대로 물들여진 승리의 기치"로, 같은해 10월 4일자 사설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각각 정의함으로써,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상징하는 것임을 나타냈다. 붉은기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1996년도에 들어서면서 달라졌다. 1996년 1월 1일의 공동 사설에서 "김일성 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는 우리 혁명 대오의 진두에 높이 휘날리고 있으며,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진군을 힘차게 고무해주고 있다"고 언급, 붉은기의 상징성을 김정일과 연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붉은기사상의 새로운 이데올로기화를 구체화한 1월 9

일자 논설에서 보다 분명해졌다. 즉, 이 논설은 붉은기를 "아버이 수령의 한생이 어려있는 성스러운 깃발이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 철학이 담겨져 있는 신념의 깃발"이라고 언급, 붉은기가 김일성의 혁명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김정일의 혁명 철학을 상징하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때부터 붉은기가 상징하고 있는 주체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이 붉은기에 대한 상징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붉은기가 상징하고 있는 주체로 김일성을 내세운 것은 김정일이 1995년 10월 2일 발표한 논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붉은기의 상징성의 주체를 김정일로 하려는 구상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 의해 조선로동당이 김일성의 당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양자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김일성을 강조하게 됐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에 의한 통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북한은 "붉은기철학이야말로 혁명의 나침반이고 모든 승리의 원천이며 영원한 붉은기사상의 생명선"이라고 언급, 붉은기철학이 붉은기사상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조선중앙방송(1997. 2.15)).

붉은기사상의 내용

북한은 아직 붉은기사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붉은기사상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다소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붉은기사상에 대한 북한의 논조들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붉은기사상이 현재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유추해볼 수는 있다. 그동안 북한이 발표한 논조들 가운데 붉은기사상의 내용과 관련된 것은 대체로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측면

북한은 붉은기사상을 이론적인 면에서 주체의 혁명 철학, 일심 단결의 혁명 철학, 그리고 신념의 철학으로 정리하고 있다. “붉은기사상은 주체의 혁명 철학, 일심 단결의 철학, 신념의 철학인 것으로 하여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로 된다.”¹⁹⁾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붉은기사상에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자기 운명을 끝까지 개척해나가려는 자주의 정신,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역세계 진진하는 일심 단결의 정신, 혁명 앞에 다진

맹세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혁명가들의 철석의 신념과 불굴의 투쟁 정신이 담겨져 있다. 더욱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결사 옹위하고 수령이 높이 치켜들었던 붉은기를 지켜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강인한 신념과 의지가 혁명의 핏줄기처럼 맥맥히 흐르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붉은기사상의 근본 핵을 이루고 있다.”²⁰⁾ 붉은기사상의 내용을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분히 이론 방법의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주체사상과 같이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그 형식에서 주체사상을 모방함으로써 아직 완비되지 않은 붉은기사상의 외관이나마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세 부분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단순히 붉은기사상의 개념 정의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체의 혁명 철학은 굳이 구분한다면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념적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붉은기사상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살아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창조적

19) 「로동신문」(1996. 1.9), “붉은기는 조선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20) 조선중앙방송(1997. 2.15), “우리의 승리의 뜻대는 붉은기”

철학”²¹⁾이라고 주장,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을 이념적 근거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음은 “붉은기사상은 우리 인민을 위대한 자주적 인민으로 되게 하고, 우리 혁명을 자주와 창조적 길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언급²²⁾한 데서 보다 분명해진다.

일심 단결의 혁명 철학은 붉은기사상이 지향하는 행동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붉은기가 단결을 상징한다면서 그 상징성으로부터 일심 단결의 혁명 철학을 끌어내고 있다. 즉, 혁명은 단결로부터 시작되고 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단결보다 더 강력한 ‘혁명의 무기’는 없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점에서 일심 단결의 혁명 철학은 결국 붉은기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강령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심 단결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혼연일체를 실현하는 데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붉은기사상이란 단결을 하여도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단결을 실현하고 통일을 이룩하여

도 사소한 티도 없는 가장 순결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붉은기사상은 령도자와 전사,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지향도 하나, 리상과 포부도 하나, 감정과 정서도 하나인 혼연일체를 실현하게 한다”²⁴⁾는 북한의 주장에서 그러한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신념의 철학은 혁명하는 사람이 견지하여야 할 규범과 관련된 것으로서 체제 고수를 위한 논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의 철학은 붉은기가 혁명의 신념을 상징한다는 데서 차용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붉은기를 든다는 것은 한 번 다진 신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혁명가는 투쟁의 첫 걸음도 붉은기 앞에서 다진 맹세로부터 시작하며 인생의 전행로에서 그 맹세를 지켜 싸우게 되며 한생의 총화도 붉은기 앞에서 짓게 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신념은 죽을 때까지 지켜져야만 한다는 논리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념의 철학은 나아가서 수령에 대한 충성,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으로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항일 투쟁 당시 “두 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를 외쳤다”는 최희숙과 1993년 남한 당국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출소 공산주의

21) 「로동신문」(1996. 1.9), “붉은기는 조선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22) 위의 신문.

23) 위의 신문.

24) 위의 신문.

자 이인모를 붉은기사상이 낳은 '신념의 화신', '의지의 화신'으로 영웅시하고 있다.²⁵⁾

실천적 측면

붉은기사상의 실천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북한의 단편적인 주장들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식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도전과 시련도 우리의 전진 운동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싸워나가도록 이끌었다. 항일 혁명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수령 용위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 극복의 정신', '낙관주의 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였다.”²⁶⁾ “우리의 '혁명적 군인 정신'에는 붉은기를 높이 들

고 전진하는 혁명 전사들이 지녀야 할 고결한 정신적 품모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혁명적 군인 정신을 체득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의 제일체 현자이며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전위 투사이다.”²⁷⁾ “우리의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영도자와 생사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 결사 용위 정신'이다”²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주민들을 붉은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고난의 행군 정신과 혁명적 군인 정신 그리고 수령 결사 용위 정신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지침 역시 각각 독자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다. 즉, “혁명적 군인 정신은 오늘 의 고난의 행군 정신의 최고 발현”³⁰⁾이며 “우리 군대의 혁명적 군인 정신은 가장 철저한 수령 결사 용위 정신”³¹⁾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붉은기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이들 세 개의 지침을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는 가

25) 위의 신문.

26) 「로동신문」(1996. 1.1).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하자.”

27) 「로동신문」(1996. 10.18). “모두 다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28) 「로동신문」(1997. 1.1).

29) 세 가지 정신 이외에 자력갱생 정신, 난관 극복의 정신, 낙관주의 정신 등 여타의 정신은 이 세 가지 정신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타의 정신들은 사실상 이 세 가지 정신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0) 「로동신문」(1996. 10.18).

31) 위의 신문.

운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 극복의 정신, 낙관주의 정신, 자기 희생 정신 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정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의 상황을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하던 시기와 동일시하는 데서 차용된 것이다.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정신에 대해 북한은 “우리 인민은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항일의 혁명 선열들이 헤쳐나간 고난의 행군이 조국 광복의 날을 앞당긴 승리의 행군으로 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고난의 행군’이 준엄한 력사의 풍파를 헤치고 우리식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는 승리자의 대행진이 되게 하여야 한다”³²⁾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적 군인 정신을 “령도자와 군인들 사이의 불패의 혼연일체 속에서 생겨난 가장 투철한 군인 정신”³³⁾이라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바치는 자기 희생 정신’, ‘절대성·무조건성의 정신’, ‘영웅적 투쟁 정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³⁴⁾

그리고 수령 결사 옹위 정신은 붉은기사

상이 북한체제 특히 새로이 출발하는 김정일 체제를 보위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을 결사 옹위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에게 무한히 충성토록 함으로써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결사의 각오로 수령을 옹위해나가는 인민이 발휘하는 위력은 무한대”라면서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시대 정의의 수호자”로 찬양³⁵⁾한 데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고난의 행군 정신은 항일 투쟁 시기,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붉은기사상이 실천적으로 지향해야 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며, 혁명적 군인 정신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항일 투사들이 투사로서 지녔던 정신, 즉 혁명에 임하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하는 정신을 밝힌 것이며, 수령 결사 옹위 정신은 오늘의 ‘고난의 행군’ 길에서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즉 체제 수호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 위의 신문.

33) 위의 신문.

34) 위의 신문.

35) 「로동신문」(1997. 1.16) 사설 참조.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붉은기사상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 구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행위의 지침' (guide to action)으로서 관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당과 국가에 의해 채택된 이데올로기를 전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국가의 전체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전체주의체제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신념체계로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게 되고 이 이데올로기는 당과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의거하면서도 각 국가의 특수한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이데올로기간에도 위계적 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같은 이데올로기의 위계적 구조와 관련해서는 Franz Schurman이 순수 이데올로기(pure ideology)와 실천 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로 구분한 것이 일반적

으로 원용되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위계적 구조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상위 개념인 순수 이데올로기로, 모택동사상을 하위 개념인 실천 이데올로기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것이다.³⁶⁾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실천 이데올로기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위계적 구조론은 북한에도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순수 이데올로기이고 주체사상이 실천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 위계 구조를 이와 같은 일반론과는 다르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시 당 규약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한 데 이어, 1992년 4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에서마저 주체사상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지도 이념으로 규정함으로써

36) Schurman, Franz, *op. cit.*, pp. 21~22.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북한체제에서 이데올로기의 위계 구조는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순수 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의 하부이념체계인 수령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우리민족제일주의론, 그리고 붉은기사상 등을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주체사상을 실천 이데올로기가 아닌 순수 이데올로기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³⁸⁾

더욱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사회주의’를 내재적 관점에서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에서 일탈한 북한 특유의 체제로 인식할 경우, 우리식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을 순수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붉은기사상의 실천 이데올로기적 성격

북한은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

여 혁명의 근본 원리를 밝힌 심오한 혁명 철학”³⁹⁾이라면서 “붉은기사상에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자기 운명을 끝까지 개척해나가려는 자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⁴⁰⁾고 강조한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사상에 이념적 토대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주체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북한 사회를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의 붉은기는 주체의 사상과 리념의 결정체이다. 붉은기를 높이 든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든다는 것이다.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가지고 조선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붉은 기폭에 담겨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이다”⁴¹⁾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붉은기철학이 주체사상을 대체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라는 세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7) 그러나 규범적인 면과는 달리 실제적인 면에서는 북한 사회에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발표한 자신의 논문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이 무엇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겠습니까”라고 언급,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38)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김성철(1993),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김연각(1993),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그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 참조.

39) 「로동신문」(1997. 1.9).

40) 조선중앙방송(1997. 2.15).

41) 「로동신문」(1997. 1.9).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위계적 구조를 주목할 때, 주체사상이 북한에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위한 순수 이데올로기로 역할하고 있으며 붉은기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순수 이데올로기없이 실천 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될 수 없고, 실천 이데올로기없이 순수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하다.⁴²⁾ 즉, 순수 이데올로기를 인간에게 통일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획된 신념체계로서, 실천 이데올로기를 현실적으로 행동에 필요한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관련체계로 인식할 때,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이며 붉은기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행동 강령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을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수령 결사 용위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일대사상전”, “패

배주의, 비관주의, 개인이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 요소를 불사르고 온 나라에 혁명적 열정과 불굴의 기상이 차 넘치게 하기 위한 혁명적 공세”⁴³⁾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붉은기사상을 행동 준칙으로 삼아 투쟁해 나설 것을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⁴⁴⁾

이러한 해석은 붉은기사상이 “전당, 전군, 전민이 당과 수령, 우리식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해나가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당도 군대도 청년동맹도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붉은기사상으로 건설해 나가야 하며, 온 나라에 붉은기정신이 꼭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⁴⁵⁾는 북한의 또 다른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실제로, 붉은기사상의 내용도 주민들의 행동 준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어 붉은기사상이 실천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 정신, 혁명적 군인 정신 그리고 결사 용위 정신 등을 비롯해 이를 구체화하는 여타 정신들도 북한 주민들이 오늘

42) Schurman, Franz, *op. cit.*, pp. 21~22.

43) 「로동신문」(1997. 1.1).

44) 따라서 북한이 올해 공동 사실에서 제시한 “온 사회를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구호는 기존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구호와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를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후자는 이른바 북한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며 전자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 예컨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붉은기사상이라는 행동 강령으로 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5) 「로동신문」(1997. 2.16).

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맺음말

오늘날 지구상에는 소수의 사회주의 국가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중국, 베트남은 물론 쿠바까지도 이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시장경제제도를 수용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지구 상에 교조적인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나라인 셈이다. 즉, 지난 50여 년간 안주해온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고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마저도 변화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과 2년 연속된 흉수 피해로 대내 사정마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 정권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붉은기사상은 북한이 바로 이같은 위기 상황 하에서도 세계사적 흐름을 외면한 채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고 내부 단결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보다 구체적인 발로인 셈이다. 붉은기사상의 시대 정신을 6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0년대말 김일성이 일본군에게 쫓기며 항일 혁명 투쟁을 하던 시기에서 구하고 있는 것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북

한의 절박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붉은기사상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단순한 구호의 차원을 넘는 이데올로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이데올로기는 도그마(dogma)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도그마란 “그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명제”라는 보헨스키(J. M. Bochenski)의 견해를 따를 때 붉은기사상은 북한 주민들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붉은기사상은 적어도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북한에게는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보다도 더 소중한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상황이 한가롭게 막연하고 공허한 이상을 쫓기 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이고 명료한 실천적 이데올로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주체사상보다 붉은기사상에 대해 더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붉은기사상에 대한 체계화 작업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를 더욱 강조해나갈 것이다. 統